



# 참여와 협력을 통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 구축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천남구)



## 사업목적 및 배경

국내외 지속불가능성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의 위기도 배가 되고 있고, 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혁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2015년 유엔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국제-국가-지방차원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

무엇보다 2014년 함께그린남구의제21실천협의회 의 명칭을 인천지역 지방의제21의 조직 중 제일 먼저 유엔 기준에 맞춰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정신을 고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2016년 3월에는 인천광역시 자치구내 첫 번째로 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에 가입함으로써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ICLEI 도시의제를 선도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지방의제21의 추진과 지속가능성 제고 활동을 행정 혁신과 정책 효과성으로 확산시켜 인천 남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내기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남구의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도입하면서도 행정의 성과도 높일 수 있는 남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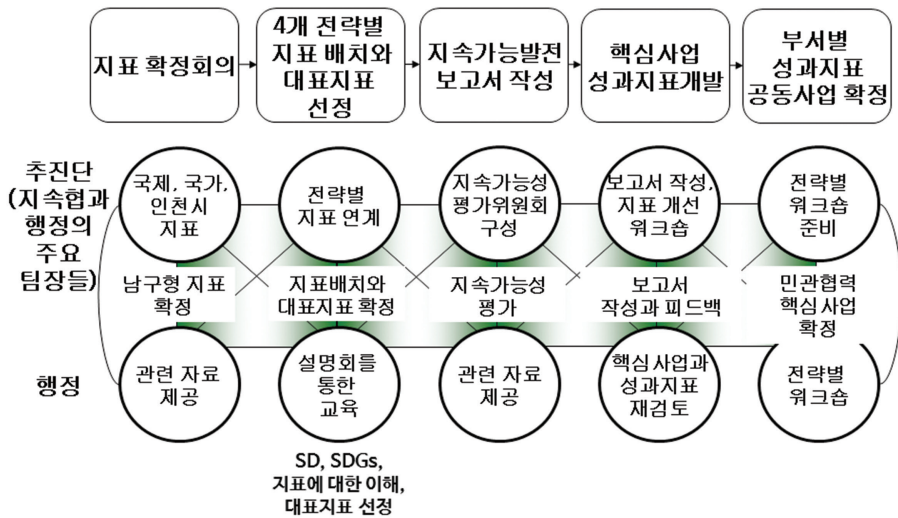
## 사업내용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논의에 발맞춰 2016년 3월 확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14차 정기총회를 통해 유엔 SDGs 교육을 진행하였고, 남구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획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어서 기획분과위원회를 ‘남구 SDGs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본격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추진단은 지속가능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고, 남구의 지속가능성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마련하여 민선6기 구정의 4대 전략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남구의 각 전략별 사업이 이들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측정값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남구 SDGs 추진단은 10회에 걸친 추진단 회의, 21회에 걸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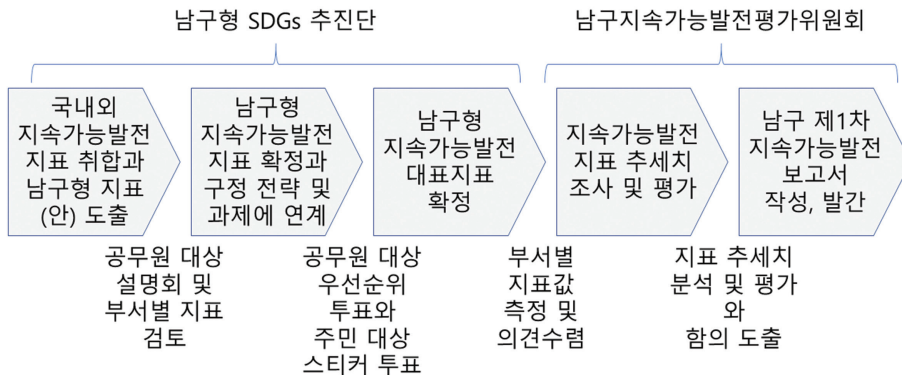
[ 남구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로드맵 ]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회의 및 7회에 걸친 SDGs 교육, 팀장급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공무원대상 설명회, 추진단이 마련한 지속가능발전지표(안)에 대한 공무원 200여 명의 우선순위 투표, 그리고 대표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 투표(스티커 투표에 718명 참가)를 거쳐 34개의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하였고, 9개의 대표지표를 도출하였다.



[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34개 지표 ]



[ 남구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작성 과정 ]





## 사업평가와 과제

인천 남구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전면으로 내걸고,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구형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선정하고 평가하였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아니었지만, 공무원과 구민의 참여 과정을 바탕으로 남구형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선정함으로써 남구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떤 분야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지를 파악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대안적으로, 각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민선6기 구정 운영방침의 전략과 분야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연계함으로써 지표의 개선을 위해 초점을 두어야 할 정책 영역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의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남구의 구정 운영방침에서 역점을 두었던 많은 지표의 추세치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악화되고 있는 지표의 경우 구정의 노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대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었다.

남구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수나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여러 경로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동의 문제해결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시민사회 역량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기보다는 과정에서 신뢰를 축적해가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민관협력에 대한



### 인천일보

2017년 9월 5일 화요일 013면 사람들

남구 지속가능성 높이기  
공무원 100명 '원탁회의'

인천 남구는 이달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탁회의는 올 초 발간된 '남구 제1차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각 부서 공무원들은 회의를 통해 생활계획을

기술 발생량과 자살률 감소방안,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대방안 등 남구의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박우섭 남구청장은 "34개 지표들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리·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남구혁신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개최했다.

인천신문 기자 happy18@incheonilbo.com



행정의 노력은 당장 성과관리에 직결되기 어려우므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 평가 결과에 따라 드러난 여러 지역 현안들을 분과위원회별로 검토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제에 제안하는 한편 협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실천사업으로 발전시킬 의제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